

원희룡 장관, ‘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 조성’ 약속 - 31일 신규 국가산단 기업설명회 개최하여 적극 지원 의지 표명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31일(화)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(구 전경련회관)에서 반도체·모빌리티·바이오·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.
 - 이 자리에는 이용록 홍성군수 등 반도체·모빌리티·바이오·푸드테크 관련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*가 위치한 지자체 및 5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였다.
 - * (대구) 스마트기술, (대전) 나노·반도체, (충남 천안) 미래모빌리티, (충남 홍성) 미래 신산업, (강원 강릉) 천연물 바이오, (전북 익산)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, (경북 안동) 바이오 생명
-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지원전략, 입지 장점 등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, 사업시행자(LH)가 산단 조성계획 및 기업지원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, 총 9개 기업이 국토교통부-지자체-LH와 투자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- 원 장관은 “중앙정부에서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업설명회를 마련하였다”면서,
 - “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각종 인·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, 기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”할 것이라면서, “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속도를 높여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 “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의 의견을 사전 계획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2023. 10. 31.

국토교통부 대변인